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7월 27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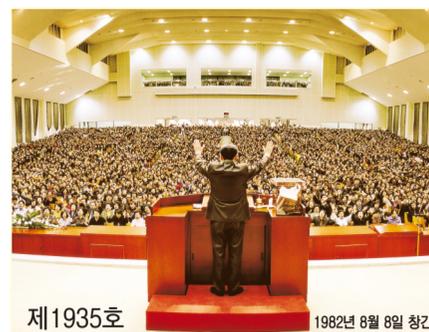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35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제 삶의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 천 미 숙 -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부모님은 쌀가게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매월 한 차례 이상 저녁에 고사를 지내고 한동안 집안 여기저기에 고사떡을 놓아두었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가 장독대 위에 소위 정화수를 떠 놓고 우리 7남매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여고를 졸업하고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던 저는, 어느 날 때문에 끼어 있는 동네 교회의 주보를 꺼내어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교회와 예배에 호기심이 생겨 토요일에 교회로 가 청년 예배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경건한 예배 분위기에 마음이 이끌려, 앞으로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 저의 앞날을 맡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교회가 작고 교인이 적어서 교회에 등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에는 성가대원으로, 토요일에는 교회 학교 보조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다니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방황하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대대로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성장한 오빠 친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저기 땅을 많이 가진 부자집 아들이어서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였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감과 공허감은 날이 갈수록 더 크고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후반에 은혜와진리교회

구역장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함께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가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너무 열심히라고 핍박을 하던 남편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동안 형식적으로 교회에 오가며 예배에 참석하던 남편이 감염성 질환인 ‘결핵’을 앓게 된 후에,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이 낫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기도를 쉬지 않았고, 남편도 주중예배와 구역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가 임하였고, 남편은 믿음이 자라고 굳세어져서 남성구역장과 안수집사 직분을 받아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것처럼 남편에게 크신 사랑과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이번에는 저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류마티스’라는 병명을 알게 된 후 저는 낙담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질환이 불치병이고, 앞으로 크고 작은 통증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 믿음이 없는 자처럼 크게 낙심하여 절망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유의 기도 시간에 누구보다 큰 소리로 “아멘”하며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흥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권능의 손길로 저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인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여 행한 잘못들을 회개하고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지냈더니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의 통증을 앓은 일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쳐주겠다는 건설회사의 말을 믿고

그 회사의 은행 대출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남편 명의의 전 재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도 잘못을 뉘우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급매로 팔고 적은 금액이나마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이 여러 면에서 겸손해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딸과 사위와 손주들까지 모두 지금 주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교회와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므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처음 은혜와진리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던 때부터 오늘까지, 지나온 40여 년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당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와 교제하시며 저희에게 더 크고 많은 복을 베푸시려고 허락하신 아픔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강이나 재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주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온 가족에게 충만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장성한 딸이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생활을 하도록 키워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또 종종 저에게 전화하여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찬양과 전도의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여 우리 모녀간에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나누다 보면 그 이상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간증문을 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1~5)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찬송가 460장) 아멘!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 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 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 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3권 (1단원 : 천국 시민이 받을 복)

(제8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

- 본문 : 마태복음 5:1-12
- 요절 :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마 5:10)
- 찬송 : 259장(새찬송가 502장), 383장(새찬송가 336장)

지금까지 우리는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일곱째 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 있는 자’에 대한 주님의 기준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데려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매우 역설적인 것임을 발견합니다.

더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는 여덟째 가르침은 복음의 역설성을 더없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의 기준이나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요,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도무지 핍박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면 그런 경우를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 이유는,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8~19)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세상의 사악함을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요 3:19~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는 의롭게 살려고 하므로 핍박을 받을 때는 자신이 주님께 속한 자임을 세상이 인정하는 줄로 알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2.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병자를 침상채 길가에 메고 나와 그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혹 누게 덮일까 바랄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 가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잠자코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예수 이름으로 백성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9~20)고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또 사도들은 채찍으로 맞는 수모를 당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습니다.(행 5:41). 또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 많은 매를 맞고 손발이 착고에 채인 채로 깊은 옥에 던져졌지만, 그로 인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밤중쯤 되어 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이 다 듣고 깨어날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행 16:16~26).

이처럼 주님을 위해 받는 핍박을 기쁨으로 감수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은 밤을 새워 읽어도 다 못 읽을 만큼 많습니다.

성도가 법과 질서나 인륜을 어긴 까닭에 세인의 비난을 듣고 또 법에 의한 징벌을 받게 되었다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다면 앞서간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께서 능히 모든 핍박을 이기고도 남을 기쁨과 용기와 위로로 우리의 심령에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3.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며 천국 생활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락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곳에서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희락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는 14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 본 낙원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잊지 못했습니다(고후 12:1~6). 이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고후 4:17)으로 여기고, 또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하나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약성경 계시록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감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 성도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롬 8:17).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팔복 중 첫째와 여덟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는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 있음은, 곧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사람은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성도들입니다.